

김도영 반토막·김호령 억대 돌파…KIA, 2026 연봉 발표

각각 2억5000만원 기록…재계약 대상자 48명 전원 마무리
성영탁, 300% 최고 인상…커리어하이 오선우, 1억2000만원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

2년 연속 우승에 실패한 KIA타이거즈가 2026 시즌 연봉 재협상을 마무리했다. 2024시즌 MVP 출신 김도영은 반토막 삭감을, 김호령은 첫 억대 돌파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KIA는 15일 “2026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8명과 계약을 마무리했다. 재계약 대상 중 인상된 선수는 25명이며, 동결 7명, 삭감 16명이다”고 밝혔다.

‘슈퍼스타’ 김도영은 지난 2025시즌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2024시즌 숱한 대기록을 세우며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기준보다 400% 인상된 5억원에 계약을 완료했다. 종전 KBO리그 4년 차 역대 연봉 최고액 보유자였던 이정후(당시 키움·3억9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나 높은 파격적인 금액이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에는 부상으로 허덕였다. 햄스트링 부상만 3차례를 당하면서 30경기 출전에 그쳤다. 성적은 110타수 34안타 27타점 7홈런 타율 0.309로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결국 올해 연봉협상에 대폭 삭감을 면치 못했다. 기준보다 50% 삭감된 2억5000만원으로 계약을 마무리한 것.



성영탁

오선우

반면 커리어하이의 활약을 평가해 주목받았던 김호령은 약수 최고 연봉자가 됐다.

김호령은 2025시즌 105경기에 출전해 332타수 94안타 39타점 6홈런 타율 0.283 OPS(출루율 +장타율) 0.793을 기록했다. 그가 타율 0.280 이상 때린 것은 데뷔 후 처음이다. 리그 최상급 탄수 수비 또한 여전했다.

올해에는 연봉으로 그 성과를 증명했다. 기준 8000만원에서 212.5% 인상된 2억5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프로 데뷔 이래 역대 연봉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가 예비 FA였다는 점도 연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등급 FA선수를 영입하려면 원소속 구단에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20인 외)과 전년도 연봉 200%를 지급해야 한다. 현금만 원할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B등급은 보호 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도 연봉 100%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C등급은 전년 연봉의 150%만 보상하면 된다. 즉 모든 등급의 보상이 전년도 연봉과 연계돼 있다. 결국 모든 요소가 합쳐져 2억원을 돌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외에 투수 전상현은 3억원에서 1000만원 오른 3억1000만원에 재계약을 하며 비 FA 재계약 대상자(외국인 선수 제외) 중 최고 연봉자가 됐다.

성영탁은 3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300% 인상돼 팀 내 최고 인상을 기록했다. 신인 김태형도 3000만원에서 100% 오른 6000만원에 재계약했다. 내야수 오선우는 3400만원에서 252.9%가 인상된 1억2000만원에 재계약을 마쳤다.

이밖에 김구성은 9000만원에 (38.5% 인상), 윤도현은 5500만원(71.9% 인상)에 도장을 찍었다.

포수 주효상도 1100만원이 인상된 5500만원에 재계약을 마쳤다. 오선우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역대 연봉을 받게 됐고, 성영탁은 데뷔 3년차에 역대 연봉자가 됐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타이거즈 외야수 '김호령'

봄배구 불씨 살린 AI페퍼스, 상승세 이어간다

내일 오후 4시 광주페퍼스타디움서 한국도로공사전

‘8승 14패’ 승점 24점 리그 6위…이원정 등 활약 기대

연패 탈출에 성공한 AI페퍼스가 중위권 탈환을 위한 승점 사냥에 나선다.

AI페퍼스는 17일 오후 4시 광주페퍼스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네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앞서 지난 13일 AI페퍼스는 정관장 배구단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18 25-21 25-16)으로 승리했다. 직전 3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했던 AI페퍼스는 올해 첫 셋이웃 승리를 3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올 시즌 정관장을 상대로 한 첫 승이기도 하다. 그 결과 8승 14패 승점 24점으로 리그 6위 자리를 유지. 최하위 정관장(승점 18)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AI페퍼스는 올 시즌 승률 50% 이상을 넘어 20승 달성과 봄배구 진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4라운드 중반을 넘어간 현재 남은 경기는 14경기. 먼저 5할 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승을 더 거둬야 한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71.4%의 승률을 달성해야 하는 셈이다. 20승으로 넘어가려면 그 벽

은 더욱 높다. 목표 달성을 현실적으로 이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창단 이후 매 시즌 최하위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탈꼴찌 가능성은 높다.

지난 시즌 달성한 단일 시즌 최다승과 최다 승점(11승25패·승점 35) 기록 역시 경신할만하다.

특히 AI페퍼스가 반등을 한다면 봄배구 진출 또한 가능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V리그 포스트시즌 진출권은 규정상 상위 3개 팀에 주어진다. 다만 리그 3위와 4위간 승점 차가 3점 이내면 단판으로 승부를 가리는 준플레이오프가 열린다.

AI페퍼스와 4위 IBK기업은행(10승 11패·승점 32점)의 승점 차는 8점. 운전히 3경기를 이겨야지만 역전이 가능한 수치다. 그럼에도 뒤집지 못할 격차는 아니다. 한번 상승세를 탄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미 최근 ‘천적’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시즌 첫 셋이웃 승리를 따내며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외인 조이가 양 팀 최다 27득점(공격성공률 63.89%)을 올리며 맹활약을 펼쳤다. 박은서는 9득점(공격성공률 42.86%), 아시아

퀴터 시마무라는 7득점(공격성공률 30.77%)을 올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외인 조이는 현재 리그 득점 4위(511득점), 공격종합 1위(공격성공률 46.39%) 등에 오를 정도로 강한 공격력을 뽐내고 있다. 평소 조이에 대한 공격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박은서와 시마무라 등이 고른 득점을 올렸다.

공격루트가 다양해진 건 세터 이원정의 활약 덕분이다.

이원정은 당초 손목 부상으로 올 시즌 개막전을 함께하지 못한 채 지난달 17일 IBK기업은행전에 서야 복귀전을 치렀다. 이날 3세트에 잠깐 코트를 밟았고, 이후 2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했다.

본격적으로 선발로 나선 건 지난달 30일 GS칼텍스전에서였다. 이날 AI페퍼스는 9연패를 끊는 데 성공했다. 이어 다시 3연패에 빠졌으나 정관장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빠른 회복을 보였다. 이 경기에서 이원정은 다양한 볼 배분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고, 30개의 세트를 성공시키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앞으로도 이러한 그의 활약을 이어진다면 시즌 초반 리그를 점령했던 AI페퍼스의 공격력은 다시 살아날 예정이다.

AI페퍼스가 한국도로공사를 꺾고 봄배구 진출을 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13일 오후 7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네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18 25-21 25-16)으로 승리한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KOVO

로 보인다. A등급 FA선수를 영입하려면 원소속 구단에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20인 외)과 전년도 연봉 200%를 지급해야 한다. 현금만 원할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B등급은 보호 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도 연봉 100%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C등급은 전년 연봉의 150%만 보상하면 된다. 즉 모든 등급의 보상이 전년도 연봉과 연계돼 있다. 결국 모든 요소가 합쳐져 2억원을 돌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외에 투수 전상현은 3억원에서 1000만원에 오른 3억1000만원에 재계약을 하며 비 FA 재계약 대상자(외국인 선수 제외) 중 최고 연봉자가 됐다.

성영탁은 3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300% 인상돼 팀 내 최고 인상을 기록했다. 신인 김태형도 3000만원에서 100% 오른 6000만원에 재계약했고, 내야수 오선우는 3400만원에서 252.9%가 인상된 1억2000만원에 재계약을 마쳤다.

이밖에 김구성은 9000만원에 (38.5% 인상), 윤도현은 5500만원(71.9% 인상)에 도장을 찍었다.

포수 주효상도 1100만원이 인상된 5500만원에 재계약을 마쳤다. 오선우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역대 연봉을 받게 됐고, 성영탁은 데뷔 3년차에 역대 연봉자가 됐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체육, 문체부 공모 국비 5억3691만원 확보

직장운동경기부 국비 사업 선정…훈련비 등 지속 지원

광주시체육회와 직장운동경기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 국비 5억3691만원을 확보했다.

그 외에도 광주 동구청 복싱(1900만원), 서구청 펜싱(5700만원), 남구청 레슬링·양궁(7600만원), 북구청 검도(4671만원)가 각각 선정돼 팀 운영에 필요한 훈련용품 구입과 훈련비 등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157개 단체 514개 팀이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75개 단체 320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와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는 운영계획의 충실했고, 인권친화 문화조성 노력, 선수단 실적, 저변확대 기여도 등 4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5억3691만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광주시체육회 소속 검도, 근대

5종, 레슬링, 스쿼시, 철인 3종 등 9개 팀에 3억 3820만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광주 동구청 복싱(1900만원), 서구청 펜싱(5700만원), 남구청 레슬링·양궁(7600만원), 북구청 검도(4671만원)가 각각 선정돼 팀 운영에 필요한 훈련용품 구입과 훈련비 등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국비 확보를 통해 광주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 체육 인재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지역 대학 연계’ 구단 홍보 활성화

대학생마케터 ‘엘리트 3기’ 수료…홈경기 기획·콘텐츠 제작 등 활동

광주FC 대학생마케터 ‘엘리트(YE:lite)’ 3기가 마케팅 활동을 마무리했다.

광주는 최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이현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구단 관계자와 엘리트 3기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은 팀별 활동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수료증 전달, 기념품 증정, 우수 수료자 시상,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엘리트 3기는 지난 1년간 광주FC 구성원으로서 홈경기 이벤트 기획, SNS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 구단 마케팅 전반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활동은 기획팀과 미디어팀 두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기획팀은 선수단 애장품 증정 및 물품 기부와 연계한 이벤트를 기획해 팬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미디어팀은 영상 콘텐츠와 카드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구단 홍보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최우수 마케터로 선정된 미디어팀 김한별 마케터는 “K리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물론, 이



최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 대학생마케터 ‘엘리트(YE:lite)’ 3기 수료식에서 참가자들과 이현 광주FC 광주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장을 가진 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팬으로서 꾸준히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현 광주FC 경영본부장은 “엘리트 3기가 한 해 동안 보여준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산업을 꿈꾸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는 2026년에도 스포츠 산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엘리트 4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모집 방법은 이달 중 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